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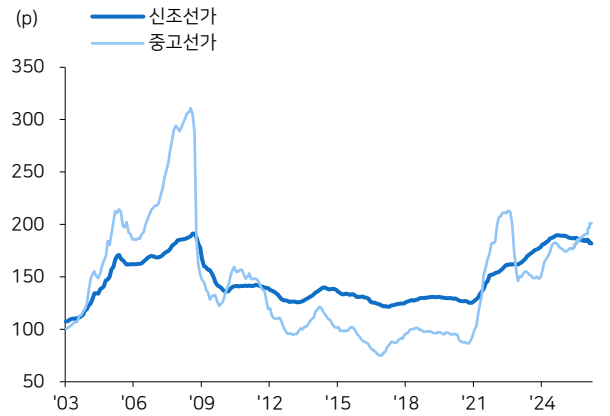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10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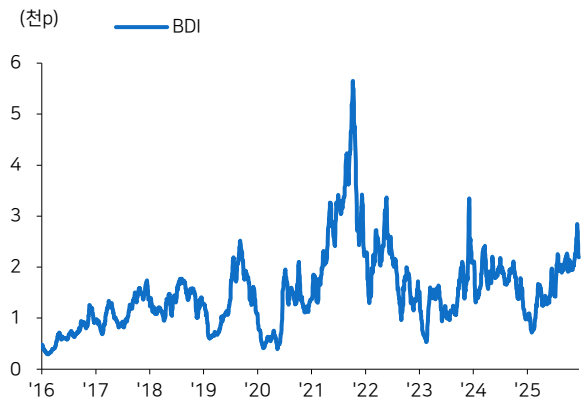
신조선가 182.0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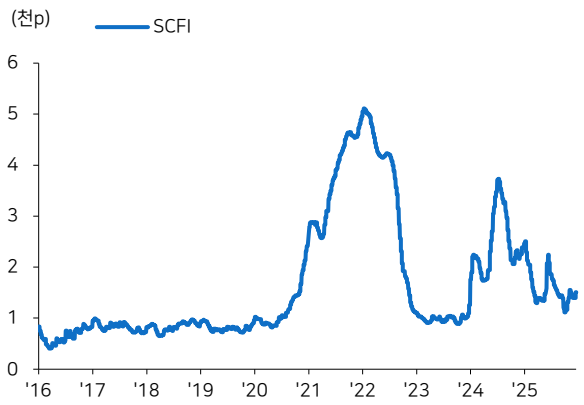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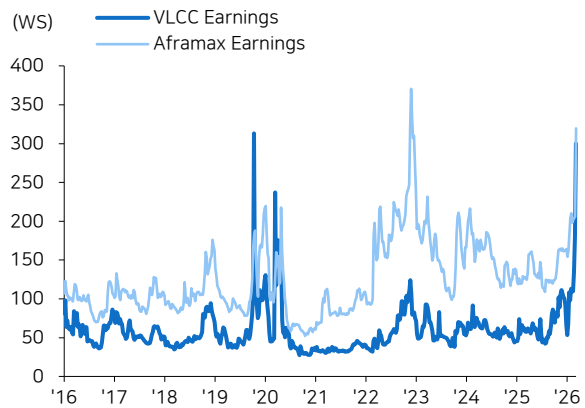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66.0p (+5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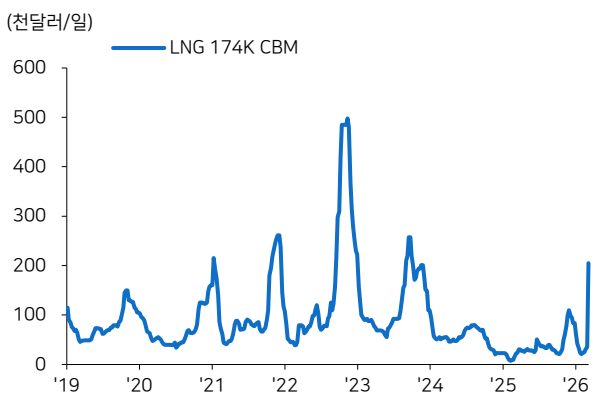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89.2p (+156.1p WoW)



VLCC Spot Rate 300.0WS (+119.9p WoW)



LNG Spot 운임 205.5천달러 (+169.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KDDX '형평성' 논란에…방사청, 한화오션에 기본설계 자료 先제공 (이데일리) https://zrr.kr/uZdhbM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 입찰 공정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한화오션에 기본설계 자료 일부를 공고 이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는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설계 자료를 제공하는 첫 사례로 보도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 대비 한화오션의 정보 불리 문제가 제기돼 자료 제공이 검토됐다고 알려짐. 또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추가 감점 적용 여부도 입찰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고 전해짐.

VLCC spending spree of the ages tops $10bn with new names sucked into the business (TradeWinds) https://zrr.kr/xseC8l

선주들이 약 3개월 동안 104억 달러를 투자해 VLCC 88척을 발주하며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대규모 발주 러시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높은 운임 전망과 노후 선대 교체 수요가 주요 배경으로, 과거 높은 조선가 때문에 발주를 미뤄왔던 선주들도 최근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전해짐. 중국의 Hengli Shipbuilding이 35척을 수주하며 현재 가장 많은 VLCC 건조 물량을 확보했고, 한국의 한화오션이 뒤를 잇고 있다고 알려짐. 또한 일부 신규 선주와 조선소까지 VLCC 시장 진입을 추진하면서 발주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선박은 2029년 인도 일정으로 계약되고 있다고 전해짐.

Nuclear power project trialled for 16,000-teu boxships (TradeWinds) https://zrr.kr/K2yvNO

미국 선급 ABS가 한국의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삼호와 협력해 16,000TEU급 컨테이너선에 적용할 원자력 기반 전기 추진 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을 공동 검토한다고 보도됨. 한국 조선소들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의 기본 설계, 전기 장비 사양, 배치 계획 등을 개발하며 이는 저탄소 선박 추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 연구의 일환으로 전해짐. HD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적용한 15,000TEU급 원자력 컨테이너선 설계를 제안해 ABS로부터 개념 승인(AIP)을 받은 바 있다고 알려짐.

European gas price surges to fresh high as supply concerns deepen over Iran crisis (Upstream) https://zrr.kr/zeHddW

이란 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LNG 운송이 일주일 이상 중단되면서 유럽 가스 기준가격(TTF)이 약 61유로/MWh 수준까지 상승하며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카타르가 드론 공격 이후 불가항력을 선언한 가운데 LNG 선박 운항이 멈추면서 수출 물량을 이동시킬 선복이 부족해 저장시설이 단기간 내 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전해짐. 여기에 유럽 가스 저장률이 29%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스라엘 해상 가스전 일부까지 가동 중단되면서 글로벌 가스 공급 불안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알려짐.

TotalEnergies in market for key Mozambique LNG services (Upstream) https://zrr.kr/VLW863

TotalEnergies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재개에 맞춰 항만 서비스 업체와 헬리콥터 운항 업체를 찾고 있으며, 시추 지원은 펨바 항구를 거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프로젝트는 모잠비크 북부 골핀호-아툼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아풍기 LNG 플랜트로 보내는 구조로, 수심 750~1,200m에서 총 18개 유정(신규 15개 포함)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이 모잠비크 LNG 사업은 무장세력 문제로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연간 1,3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2029년 첫 LNG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짐.

트럼프 "이란전 사실상 끝나가…호르무즈 해협 장악도 검토"(이데일리) https://zrr.kr/hiyxzK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며, 미군이 첫 일주일 동안 이란 내 약 30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그는 이란의 해군 · 공군 · 통신망 등이 대부분 무력화됐면서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국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짐. 또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이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이 선박 운항을 방해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